

“못다 이룬 프로의 꿈 통역으로 달려자”

KIA 일본인 코치 ‘그림자’ 이우중·진우 형제

일본에서 야구 시작...수창초·동성고 선후배

동생 진우, 볼펜 포수하다 군 입대하며 형 추천

능력·성실함 인정받아...“팀에 보탬되고 싶다”

KIA 타이거즈에는 일본인 코치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야구 형제’가 있다. 이루지 못한 프로 선수의 꿈을 내려놓고 그라운드 밖 선수로 살고 있는 이우중(23·진우(22)). 두 형제는 수창초-동성중-동성고에서 함께 야구를 한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어렵게도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KIA에 없어서는 안 될 프로다. 지난 오기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두 사람은 각각 타케시 배터리 코치와 소다 타격 코치의 통역을 맡아 선수들과 함께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자유자재로 일어를 구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야구 선수로서의 경력은 두 사람의 큰 장점이다. ‘척하면 척’하고 코치와 선수들의 마음을 읽고, 이야기를 듣고 전달한다. 능력에 성실함까지 인정받으면서 동생은 군복무를 마친 뒤 이번 가을 다시 팀에 합류했다. KIA에서는 동생이 ‘선배’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에 다녔던 이진우는 1학기가 끝난 뒤 고양 원더스 등을 통해 야구 선수의 꿈을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지 못했던 그는 KIA 볼펜 포수로 또 다른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KIA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뒤 군대를 가게 된 그는 자신의 빈 자리에 형을 추천하면서 ‘야구 형제 통역’이 탄생했다. 지난해부터 타케시 코치의 그림자가 되어 움직였던 형과 제대를 하고 복귀한 동생은 다시 팀이 됐다. 이우중은 “작년에는 처음 일을 하는 거라서 정신없었는데 올해는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더 여유가 생겼다. 선수를 했던 입장에서는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상당이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상대한다는 게 어렵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좋은 분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 선수들과 같이 성장하는 기분이라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 초등학교생일 때 야구를 시작했다. 일본 프로 선수로 뛰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부상 등으로 야구가 잘 안 됐고 어느 날 보니 게임만 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일본어 학원에 다니면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다”며 “야구선수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팀을 운영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재미있어 보인다. 야구선수 출신의 장점을 활용해서 팀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발전하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동생의 마음도 비슷하다. 그라운드에 꼭 필요한 KIA의 또 다른 선수로 살고 싶은 게 동생의 바람이다. 이진우는 “제대를 하고 팀에 돌아왔는데 성실함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뿌듯하고 감사하다. 형이 야구를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야구를 시작했었다. 선수는 아니지만 프로에서 뛸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형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신다”며 “어렸을 때 먼저 배운 말이라서 일어를 말하는 게 더 편하다. 이번 캠프에서는 소다 코치님을 도왔는데 앞으로 통역을 목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구 선수 출신 통역은 드물다. 여기에 형제가 함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그만큼 그라운드 밖에서 야구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두 형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KIA의 일본어 통역을 맡고 있는 이우중(오른쪽)·우진 형제가 마무리 캠프가 열렸던 오기나와 킨 구장에서 포즈를 취했다.

KIA, 김병현·최용규·필·지크 방출

KIA 내야수 최용규와 베테랑 투수 고창성(NC), 이정훈(넥센), 김광삼(LG) 등이 방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30일 10개 구단의 2017년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10개 구단의 보류 선수는 총 572명으로, 올해 KBO리그에 정식 등록된 선수 680명 중 총 108명이 방출됐다. 이 중 시즌 중 임의탈퇴 및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이는 34명, 군보류 선수는 9명이다. 여기에 FA 미계약 선수 11명 등 54명이 소속 선수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 25일 구단들이 제출한 보류선수 명단에서 54명(국내 선수 40명, 외국인 14명)이 추가로 방출됐다. KIA에서는 이미 작별이 공식화된 투수 김병현, 재계약이 불발된 필·지크 두 외국인 선수와 함께 내야수 최용규가 보류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방출됐다. 보류선수 명단 제외 선수 중에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땀던 고창성을 비롯한 김광삼, 이정

훈 등의 베테랑 투수들이 눈에 띈다. 두산과 1년 전 1+1 FA 계약을 했던 내야수 고영민, FA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던 SK 투수 김승희 등도 방출됐다. 은퇴와 함께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는 LG 이병규(9번)와 두산 홍성흔도 예정대로 이름이 빠졌다. 승부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태양(NC) 도박사이트 개설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안지민(삼성)도 이번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프로야구는 구단별로 최대 65명으로 보류선수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각 구단은 FA 영입과 새로운 외국인 선수 계약, 육성 선수의 정식 선수 전환 등에 대비해 자리를 비워둔다. KIA에서 가장 많은 62명을, 세 명의 외국인 선수 포함 12명을 방출한 삼성이 제일 적은 49명을 보류선수로 묶었다. KIA가 61명, 한화가 60명, 두산이 59명, NC와 넥센 그리고 kt가 57명, SK가 56명, LG가 54명을 보류선수 공식 요청을 땀던 고창성을 비롯한 김광삼, 이정

금빛예열 이상화 “천천히 따라갈게”

빙속 월드컵 3차 대회 앞두고 각오 다져

“일등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상위권의 자리를 매년 지키기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너무나 편하다. 천천히 천천히 따라갈게.” 동계 올림픽 여자 500m 2연패에 빛나는 ‘빙속여제’ 이상화(27·스포츠토토)가 2016-2017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시리즈를 맞이하는 각오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긴 글처럼 ‘일등보다 과정’으로 압축된다.



이상화는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제 51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서도 최재진과 만나 “지난 시즌처럼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대회의 우승에 목표를 맞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500m 3연패 달성 꿈에 이루기 위해서는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무리해가며 정상을 지키는 것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 서서히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이상화의 전략이다. 지난 시즌 4차례 월드컵에 나선 이상화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의 좋은 성적표를 얻었다. 하지만 월드컵 시리즈 막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상화는 무릎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며 이번 시즌을 준비했다.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이상화의 ‘노골적 행진’을 지켜보는 팬들의 아쉬움은 크지만, 오히려 이상화는 “상위권의 자리를 매년 지키기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너무나 편하다. 천천히 따라갈게”라는 글로 안심시켰다.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예열을 마친 이상화는 다음 달 2일부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월드컵 3차 대회

에서 시즌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상화를 비롯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지난 26일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가 현지 적응훈련을 치르고 있다. 이상화는 이번 시즌 일본의 ‘백전노장’ 고다이라 나옴(30)과 경쟁하고 있다. 이상화는 월드컵 1, 2차 대회를 통해 랭킹포인트 205점을 확보해 1, 2차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몰아친 고다이라(랭킹포인트 300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긍정적인 것은 이상화의 500m 기록이 레이스를 펼칠 때마다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월드컵 1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 38초 47로 6위에 그쳤던 이상화는 2차 레이스에서 38초 11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 차례 레이스만 치러진 월드컵 2차 대회에서는 37초 92로 2위에 올랐다. 이상화는 현지시간으로 12월 2일 500m 1차 레이스를 펼치고, 12월 4일 2차 레이스에 나선다. /연합뉴스

테임즈 ML 밀워키 입단



29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에릭 테임즈가 미프로야구(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계약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3시즌 동안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한 테임즈는 밀워키와 3년 계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보장금액 3년 187억원...주전급 계약

피츠버그 천적...강정호와 맞대결 기대

한국야구의 메이저리그 도전사를 살펴 보면 항상 선구자가 있었다. 한국인이 최고의 무대에서 통한다는 건 박찬호(43)가 보여줬고,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는 한국인 타자로 메이저리그 정상급 반열에 올랐다.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최초로 KBO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 직행해 활약을 펼쳤고,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는 KBO리그 출신 타자로는 처음 빅리그에 직행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지난 29일 밀워키 브루어스와 계약하며 빅리그 복귀에 성공한 에릭 테임즈(30)는 강정호가 닦은 길을 따라간 사례다. 테임즈는 밀워키와 3년 계약을 맺었고, 보장금액만 1600만 달러(약 187억원)에 달한다. 4년 차에 구단 동의로 계약을 1년 연장하게 되면 테임즈는 최대 2450만 달러(약 287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뉴욕 포스트는 “최근 한국의 스타 선수인 강정호와 김현수, 이대호가 빅리그에 진출했고 좋은 타격을 보여줬다. 테임즈의 계약은 한국야구의 수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테임즈는 2011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는데, 2012년까지 주로 백업 외야수와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메이저리그에서 2년 동안 타율 0.250에 홈런 21개, OPS 0.727로 타격 성적이 중요한 코너 외야수로는 아쉬운 성적을 남긴 테임즈는 2013년에는 마이너리그와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에서만 뛰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테임즈는 한국행을 택했다. 2014년 NC 다이노스와 계약한 테임즈는 올해까지 3시즌 동안 타율 0.349, 124홈런, 382타점, OPS 1.172를 올렸다. 연평균 41개 이상의 홈런과 127타점을 올린 셈인데, 한 시즌만 찍어도 MVP에 근접할 성적을 3년 내내 기록했다. 강정호의 성공으로 KBO리그에서 타자의 성적을 인정하기 시작한 메이저리그는 자연스럽게 테임즈를 주목했다. 몇몇 구단은 시즌 중 꾸준히 스카우트를 파견해 테임즈의 경기 장면을 면밀하게 점검했고, 스카우트를 파견하지 않은 구단도 그를 영입 후보 리스트에 올려서 관리했다. 이번 계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MLB닷컴은 테임즈 영입을 도박으로 규정하며 “밀워키는 최근 아시아 전담 스카우트를 파견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 3년은 주로 비디오를 통해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전담 스카우트를 파견하지 않고도 테임즈에게 주전급 계약을 안겨 준 밀워키는 KBO리그 성적을 신뢰했다는 의미가 된다. 테임즈의 ‘빅리그 복귀 성공사례’는 한국행을 망설이는 메이저리그 선수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 KBO리그 활약만으로 빅리그 복귀가 가능하다면, 재기를 노리는 수준 높은 선수도 얼마든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응용 야구소프트볼협회장 당선

“한국야구의 전설” 김응용(75·사진) 전 한화 이글스 감독이 야구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아마야구의 새로운 수장에 올랐다. 김 전 감독은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144명 중 127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85표를 얻어 이계안(64) 2.1 연구소 이사장(41표)을 44표 차이로 제치고 초대 회장에 당선됐다.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로써 김 신임 회장은 4년 임기 동안 대한야구협회·대한소프트볼협회·전국야구연합회의 통합이 연착륙되도록 이끄는 것은 물론 위기에 빠진 아마야구를 구해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야구인(김응용) 대 정치인(이계안)의 양자 대결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김 전 감독의 당선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

과다. 김 신임 회장은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야구계의 거물이다. 해태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한화 사령탑을 두루 거치며 전대미문의 한국시리즈 역대 최다인 10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삼성 상장에 오르며 경기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장직까지 승진하는 기록을 남겼다. 김 회장은 현장과 프런트에서 모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 회장은 “한국야구의 미래를 바로 세우겠다”며 야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김 회장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야구인이 그에게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했다. /연합뉴스